도내 우수선수들 월드스타 되다

배드민턴 김태림 · 김유정
테니스 조세혁 · 수영 이서아
골프 안해천 · 양궁 유홍현
육상 최명진 등 총 7명 선정
전북체육회, 선수 간담회 열어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월드스타 육성 선수 간담회를 열고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올해 월드스타 육성 사업 대상자로 6개 종목에 7명을 선발했다.

이 사업은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 선수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선정 된 선수는 배드민턴 김태림(생명과학고)·김유정(성심여고), 테니스 조세혁(전일중), 수영 이서아(전북체육중), 골프 안해천(남원중), 양궁 유홍현(온고을중), 육상 최명진(이리동중) 등이다.

이들은 기복 없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이들에게 체력측정(운동생리·운동역학 등)과 신체트레이닝 등 과학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접목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스포츠 심리상담사를 비롯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용품과 전지훈련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강선 회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시스템이 도입되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우수 선수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체육, 더 나아가 한국체육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월드스타 육성 선수 간담회를 열고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사진은 정강선 회장과 월드스타로 선정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드의 김하성이 손가락 통증에도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상대가 무려 한때 '우주 최강 에이스'로 꼽히던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다.

김하성, '최강 에이스' 커쇼에 홈런포

MLB LA다저스전서 5회말 대타로 출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드의 김하성이 손가락 통증에도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상대가 무려 한때 '우주 최강 에이스'로 꼽히던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다.

김하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전에 2-0으로 앞선 5회말 대타로 등장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커쇼와 상대한 김하성은 74.3마일(약 120㎞)짜리 커브를 걷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2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떨어지는 공을 제대로 받아쳤다.

지난 20일 신시내티 레즈전에 이어 나흘 만에 쏘아올린 시즌 5호 홈런이다. 전날 수비 중 손가락에 공을 맞아 선발 명단에서 빠졌던 김하성은 기대에 보란듯이 부응했다.

최근 기세가 좋진 않지만 커쇼는 MLB 내 최고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다. 게다가 커브는 커쇼를 대표하는 구종.

김하성은 타구를 확인한 뒤 더그아웃을 바라보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커쇼가 아시아 출신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디에이고는 다저스를 3-2로 눌렀다. 9회 마무리 마크 멜란슨이 솔로 홈런을 맞아 턱밑까지 쫓겼지만 무사히 승리를 지켰다. 1점차로 승부가 갈렸으니 김하성의 홈런 한 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6연승에 성공한 샌디에이고는 44승32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지켰다. 2위 다저스(44승29패)와 격차는 1.5경기로 줄었다. /뉴시스

정부, 체육계 '학폭 미투' 2건 직권조사 · 후속 조치

대입에서 학폭 관련 학생부 보는 대학 3곳 불과… 대학스포츠협의회, 재정지원사업 가점으로 유도
학폭 가해선수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8월까지, 가해정보 통합시스템 법안도 계류… 서약서 요구

올해 초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폭미투(#metoo·나도 당했다)' 신고를 받은 정부가 직권조사·후속 조치에 나선다.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7월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교육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지난 3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담 42건과 신고 19건 총 61건을 파악했다.

이 중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된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나머지는 화해·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종결됐다. 신고기간 내 접수된 15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이른바 '체육계 학폭미투'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종목별 단체에 제재를 요구한다. 최대 120일 안에 처리를 마치고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수시로 통보한다.

정부는 이재영·다영 자매의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뒤늦게 드러난 운동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발 제한, 출장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재내용을 반영한 대학은 3개교에 불과했다.

정부와 대학스포츠협의회는 학폭 가해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대학에 대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주고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제한 조치는 당장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도록 하는 개정 선발규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7월23일 개막할 예정인 올해 도쿄올림픽에는 해당 제재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가해 사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대회출전·선수등록 사전 제한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인권서약을 받고, 대회출전 신청시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육계에 만연한 이른바 성적 지상주의 문화가 폭력의 연결고리라고 보고 이를 끊어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앞서 4월 지도자를 채용·평가할 때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선수간 의사소통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다.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태권도, 세계평화를 이루자'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예방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국기 태권도 활성화에 천주교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예방은 서울대교구청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신학대학교 1·2학년 때 태권도부에서 수련했고 태권도야 말로 평화와 화합의 무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사장께서 국기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에도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을 두고 가라테 등 유사 무예와 경쟁 중이다"라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에 천주교계에서도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수정 추기경은 기념 송판에 '태권도, 세계평화를 이루자'라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 후 오응환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 '경기장 음주 금지 · 주류판매 보류' 가이드라인 공표

조직위 회장 "안전한 대회 위해 결단"

파문이 일었던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 주류 판매가 보류됐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경기장 내에서는 음주가 '금지'됐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공영 NHK와 데일리스포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올림픽 관중을 위한 코로나19 대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 라인은 경기장에서의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알콜 음료 반입도 금지했다.

경기장에서의 주류 판매도 보류했다.

당초 조직위는 경기장 내 주류 판매, 관중의 음주 허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론부터 의료종사자, 여야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류했다.

가이드라인은 경기 관람 전, 경기장으로 이동, 입장 시, 경기장 내, 관람 후 등 5개 경우 감염 대책 협력을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과 '직행직귀'를 호소했다. 다른 곳은 들리지 않고 집 혹은 숙박시설과 경기장만 오간다는 뜻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입장시 두 번에 걸친 측정에서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장 내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관중들이 밀집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매점, 화장실 등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경기장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하이타치를 하며 응원하는 것도 금지됐다.

만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기장 입장 거부와 퇴장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했다.

만일 관중 가운데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좌석번호를 알기 위해 티켓과 데이터를 최소 14일 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경기 관람 후 양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에 관람 일시와 좌석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23일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과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등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경기장 주변 주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불안이 있다면 알콜류 제공은 단념해야겠다고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예단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회 최우선 사항은 안전, 안심의 확보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는 사태가 될 경우에는 무관중도 포함해 관계자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체육진흥공단, ISF와 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22일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와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알렸다.

ISF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 인재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국제스포츠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청소년 스포츠 캠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원은 ISF와 함께 지속적인 국제 학술 트렌드 및 정보 공유,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과제 진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윤신 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스포츠 무대로 대한민국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과학원이 다년간 쌓은 학술적 노하우를 활용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스포츠 인재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